

# 전남 드래곤즈 '박항서 체제' 굳힌다

### 공격수 안효연 이어 김영철 등 5명 잇따라 영입

### 22일부터 中 쿤밍 전지훈련...올 시즌 돌풍 예고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대대적인 팀 컬러 재편에 나섰다.

전남은 20일 성남의 베테랑 수비수 김영철과 대인마크에 능숙한 이정열을 영입해 수비진을 새로 구축했다.

이에 앞서 전남은 공격수 안효연에 이어 정윤성과 김승현을 잇달아 불러들이면서 올 시즌 프로축구 겨울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광양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 박항서 감독은 이적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2009시즌을 구상하고 있다.

2007년 12월28일, 시즌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전남 사령탑에 오른 박 감독은 자신만의 팀을 꾸리기에 시간이 촉박했다. 설상가

상 주전들의 줄부상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리그 6강 플레이오프 탈락, AFC 챔피언스리그 탈락의 쓴맛을 봤다. 삼성 하우젠컵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달래기는 했지만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었다.

신년사에서 "필요한 선수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겨울을 보내겠다는 박 감독은 자신의 말처럼 공격적인 선수 영입을 통해 '박항서 컬러' 굳히기에 들어갔다.

안효연을 시작으로 박 감독의 개혁 신호탄이 울렸다. 19일에는 경남 감독 시절 인연을 맺은 정윤성(FW)을 광양으로 불러들였고, 2006~2007년 전남의 FA컵 우승을 이끌었던 부산의 김승현(MF)도 함께 친정으로

복귀시켰다.

'골 넣는 수비수' 콰데워의 부상으로 생긴 중원 공백에는 김영철과 이정열을 채웠다.

김영철은 통산 336경기에 나서 1골 7어시스트를 기록한 백전 노장, 이정열은 중앙과 측면을 고루 소화하는 수비수, 박 감독의 부름을 받은 두 수비수는 새로운 수비 라인을 그리면서 2009년 전남의 부활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새로운 선수들의 가세로 '베스트 11'을 향한 선수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전망이다. 광양에서 새 봄을 기다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남 선수단은 22일 중국 쿤밍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어느해보다 치열한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전남 선수들은 다음달 13일까지 전지훈련을 갖고 한치 양보 없는 생존경쟁을 펼친다.

박항서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남, 2009시즌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앗! 공만 보세요”

20일 호주 멜버른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경기에서 프랑스 까미유 뎡 선수가 중국 정제 선수의 볼을 받아 넘기고 있다. 정제 선수가 2-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박지성, 뒤늦게 챔피언스리그 우승 메달 받아

'산소탱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메달을 뒤늦게 받았다.

박지성의 매니지먼트사인 JS리미티드 김정수 팀장은 20일 "박지성이 지난 12일 첼시와 정규리그 홈 경기를 마치고 나서 구단으로부터 챔피언스리그 우승 메달을 건네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지난해 5월 러시아에서 치러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우승 메달 수령자 명단에 들지 못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유도회 염창곤 회장 취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염창곤(44·사진) (주)상암대표이사 20일 제7대 광주시 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광주시 유도회는 20일 광주 그랑시아웨딩타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염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광주유도 부흥을 위해 유도회 결집력을 다지고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고교 축구팀 선수 年 283.5일 합숙”

고등학교 축구팀 선수들은 연평균 283.5일을 합숙하고 매월 68만2천원의 회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축구협회가 국내 축구산업 전반의 통계자료 마련을 위해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시행한 '2008 KFA 총조사' 결과 국내 초·중·고 축구팀들의 연평균 합숙일은 106.3일이었다.

이번 총조사에서 학교축구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중·고 학원팀 선수와 부모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지난 2003년 천안초등학교 회계 감사 사건 이후 급기이었던 초등학교 축구팀도 합숙(연평균 15.1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매월 평균 68만원 부담

### 초등팀도 합숙 수두룩

또 중학교팀은 연평균 25.3일, 대학교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팀의 경우 무려 연평균 283.6일이나 합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이 길어지면서 선수들의 금전적인 부담도 이에 비례하고 있다. 초·중고 선수들의 평균 월회비가 41, 2만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고등학교 선수들은 매월 68.2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국대회에 참가할 경우 응급처리의 86.8%가 별도로 대회 참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그 비용은 평균 24만8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의 축구 등록선수(대한축구협회 및 전국축구연맹회 소속 기준)는 20만7천262명으로 확인됐고, 제주도는 인구 대비 등록 선수 비율이 3.05%에 달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조종연 VS 허승표



### ■ 축구협 내일 새 회장 선출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오전 서대문구 흥인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몽준 회장의 뒤를 이을 제51대 수장을 뽑는다.

축구협회는 20일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조종연(63) 축구협회 부회장과 허승표(64) 씨피플러스 회장이 나란히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총회 선거를 통해 16개 시도 협회, 7개 산하 연맹 회장과 협회가 지명하는 중앙대의원 5명 등 총 28명의 대의원이 한 표씩 던지는 투표에서 과반(15명) 득표자가 당선된다.

총회 당일 대의원들이 뽑는 임시 의장을 선출해 선거 상황을 진행하고 후보 두 명이 10분씩 경연을 발표하고 나서 투표에 들어간다. 두 후보가 같은 표를 얻었을 때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연합뉴스

## 조종연 “포용 통한 화합·협회 체질개선”

## 허승표 “변화와 개혁... 축구에 경영 도입”

### ■ 축구협회장 후보 공약은

21일 선출되는 제51대 대한축구협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종연(63) 축구협회 부회장과 허승표(63) 씨피플러스 회장은 캐치프레이즈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16년간 협회를 이끌어왔던 정몽준 회장의 '복심'으로 통하는 조종연 부회장은 여권 후보에게 안정과 화합을 화두로 내세운다.

구체적인 공약은 ▲한국 축구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 ▲심판 자질 향상 및 독립성 확보 ▲시·도협회 행정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초·중·고교 주말 리그제 정착 ▲협회 예산 구조 안정 및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등 정몽준 체제에서 시행했던 정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8년부터 협회 전무를 맡아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성공적으로 치른 '행정'의 달인'답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갈라진 축구계 화합에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달리 야당 후보로 불리는 허승표 후보는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는 강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준에 집중했던 축구 행정을 시·도협회에 나눠줌으로써 획기적인 분권화를 이루고 ▲유·청소년팀 3천개, 등록선수 10만명 육성 ▲지도자 처우 개선 ▲우수 지도자 및 월드컵 육성 프로젝트 가동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인 씨피플러스와 광고대행사인 실버블랫, 모투스스피 등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 경험을 살려 700억원 규모로 성장한 축구협회의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획기적인 마케팅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허 후보의 구상이다.

경기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서도 양 후보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허승표 후보는 사제 50억원을 출연하고 대기업의 네이밍 마케팅을 이용해 꿈나무를 키울 공간인 '드림스타디움'을 총 사업비 200억~500억원을 들여 짓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놨다.

땅은 지방자치단체에 50년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받아 드림스타디움을 월드컵을 육성하는 한국 축구의 '요약'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연합뉴스

## 1년 예산만 762억 '파워 막강'

### ■ 축구협회장 어떤 자리

22일 오전 대의원 총회로 결정될 제51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의미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새삼 쏠리고 있다.

그러나 1993년 제47대부터 정몽준 현회장이 계속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리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종연(63) 협회 부회장과 허승표(63) 한국축구연구소 이

사장의 양자 대결로 구도가 압축되면서 누가 후임이 되느냐에 못지않게 새 회장이 휘두를 파워에도 눈길이 가는 것이다.

우선 예산 규모만 봐도 축구협회장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축구협회 2009년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0% 증가한 762억원이다.

서울시 랜만한 구 예산의 절반 가까운 규모의 돈을 대표팀과 산하 연맹에 적절히 분배해 '국민 스포츠'인 축구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맡아야 한다. /연합뉴스

## 스피치 리더십

교육내 용인

1. 스피치 리더십의 중요성  
2. 스피치 리더십의 구성요소  
3. 스피치 리더십의 효과  
4. 스피치 리더십의 적용  
5. 스피치 리더십의 발전

문의: 02-226-1221, 02-226-0441-7000

## (주)제주무궁화관광

###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1박 2일 여행 패키지

1. 제주도 1박 2일 여행 패키지  
2. 제주도 1박 2일 여행 패키지  
3. 제주도 1박 2일 여행 패키지

문의: 064-744-1109